

# Venture Radar

## 창업벤처 5년간 세제 혜택

이현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기업이 창업하면 5년 정도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정부 간섭도 배제하며 창업 인큐베이터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지난 22일 합의했다.

또 이 부총리와 강 회장은 프로젝트 수출 지원, 국가별 마케팅 전략 공동 수립, 정부와 재계의 협력 채널 구축 등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이 부총리는 “관리형 기업가는 단기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인 경영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투자 성과는 적어도 4~5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만큼 향후 창업형 기업가들에게는 5년 정도 세제 측면이나 불간섭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큐베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와 강 회장은 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상품 수출에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감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의 자본·기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대형 투자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 산자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550억 책정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가 올해 총 9498억원을 투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산자부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 임관 삼성종합기술원장)를 개최하고 '04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6010억원)과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3488억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혁신기술개발(3170억원)을 비롯해 부

품소재·항공우주·청정생산 등 총 601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지원을 위해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을 신설(550억원), 20개 과제를 올해 안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산자부가 주관하는 디스플레이·지능형로봇·차세대자동차·차세대반도체·차세대전지 등 5개 성장동력분야는 모든 과제를 종합 관리하는 기업형 사업단 체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주력기간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기존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중기거점 720억원, 차세대 신기술 570억원, 핵심기반 650억원)은 기업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도록 제도를 '수요자 중심·성과중심'으로 개선했다. 또 10년이던 차세대 신기술 개발기간을 7년으로 단축해 조기사업화를 유도하고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30개를 추가 지정해 5년간 연평균 4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 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육성 808억 투입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04년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을 발표, 오는 '07년까지 국내 생산규모 7조5000억원, 수출 4억 달러, 일자리 1만2000명 창출을 달성하기로 하고 올해 8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 등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해 산업육성 기틀을 마련했다면 올해부터는 이들 전략을 착실히 수행해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전략상품 발굴·상품화·투자·수출지원 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유명제작센터를 유치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제작업체의 여건을 개선하고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디지털콘텐츠 개발·구매계획을 조사해 업계에 미리 알려주는 수요예보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IT(정보기술)연구센터와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내 디지털미디어연구소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오는 '07년까지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에 첨단 IT콤플렉스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중기청, 중소벤처 M&A 컨설팅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중소벤처기업이 인수합병(M&A) 추진에 필요한 중개비용의 50%를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벤처,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 등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이 5% 더 높아진다.

중기청은 최근 영세중소기업 M&A 컨설팅 시장이 활기를 잃고 있으며 특히 비상장 기업 쪽은 사각지대에 가까워 M&A 추진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상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PL(제조물책임) 예방 및 방어서스템 구축, 자동화, 정보화 등 기업의 종합구조개선 사업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에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당 지원규모는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총 컨설팅 비용의 60% 정도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사업에 참여하려는 컨설팅사, 컨설팅트는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각 사업 분야별 지원 내용을 보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중기청, 조달정보 실시간 제공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국제조달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국제조달시장 규모가 2조1000억 달러에 이르는데도 국내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규모는 모두 40억 달러로 전체의 0.2%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들이 이 시장에 본격 참여할 수 있게 국제조달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지난 23일부터 인터넷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www.b2g.go.kr)을 통해 ▲조달품목 ▲규격 ▲수행지역 ▲마감일 ▲주계약자 ▲축적데이터 등 조달시장 정보를 매일 3000~6000건씩 안내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안에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주계약자 알선 및 입찰서류 대행 등 모든 절차를 일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워싱턴에서 내달 열리는 미 정부조달유망전시회(FOSE)에 참가할 수 있게 지원하고 미국정부조달 1백대 계약자 및 한국계 기업 계약자들과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 중진공, 전국 11곳에 '이노베이션 카페' 설치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전국 각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지원기관 관계자 등 지역산업 혁신주체들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곳에 '지역이노베이션 카페'를 설치 운영한다.

'지역이노베이션 카페'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본사 개소식을 시작으로 경기·강원·대전·충북·대구·부산·울산·광주·전북·제주 등에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산업자원부 후원으로 개소되는 '이노베이션 카페(INNOVation-Cafe)'에는 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간단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비즈니스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교수·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컨설턴트 등의 상담 및 자문활동도 지원 된다.

중진공측은 앞으로 지역 경제인간 대면 접촉을 통한 교류와 지역 내 공동관심 사항에 대한 포럼, 연구회, 조찬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 개최와 함께 기술개발지원제도, 중소기업지원제도, 산학협동 프로그램, 이업종 기업간 교류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벤처 이슈

### 전자신문

벤처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빠른 회수를 바라는 조급한 투자자와 경쟁거반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만들어낸 공급과잉과 같은 조급증이 먼저 치유되어야 벤처투자의 경제 및 사회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제언을 담은 소프트뱅크벤처스 문규학 대표의 칼럼

▼ 2004년 2월 19일 전자신문 31면

#### 벤처포럼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지난 2000년을 정점으로 벤처투자 시장은 급속히 위축됐다. 이 여파로 벤처기업의 자금난도 심화되고 있다. 경기침체의 자금난으로 유·폐업하는 벤처기업이 늘어. 벤처 2년 연속 벤처기업의 수는 급감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벤처투자는 크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나누어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벤처투자는 갖는 속이는 갖는 속이는 경제적 가치의 최대치를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는 당연히 투자에 있어서 분할적인 요소없이 분

할한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 가치만을 내세우며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즉 벤처투자의 사회적 가치가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벤처 약속기를 맞게 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벤처투자의 사회적 가치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많은 벤처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투자자들이 이데에서 나왔는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투자자 과열했던 시기에는 자본력이 막강한 개인이나 일반기업들이 벤처투자의

본질인 투자손실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벤처투자펀드에 과감하게 자금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창업투자회사나 모어시 운용하고 있는 전문직간접적으로 국민의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언·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국내 대다수의 창업투자자들은 작은 규모의 조행이라도 제대로 구성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에서 이렇듯 서둘러 지양해야 한다. 지난 2~3년간 벤처기업의 배려, 코스닥 시장의 무질서한 변동폭적인 성격과 조사 등이 신문과 사회·경제면의 기록 재운 사

### 매일경제

매출이 늘고 코스닥등락이 유망한 벤처기업에 자금이 물리는 반면 별다른 실적이 없는 벤처기업들은 투자시장에서 외면당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있다. 이는 뛰어난 벤처기업들을 골라 회사 성장 단계에 따라 후속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자회수에 유리하다는 벤처캐피탈사의 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보도한 기사

▶ 2004년 2월 17일 매일경제 17면

실만 보더라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간에 도덕적 위험이 생길 경우 가 많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논 문이라는 생각에서 무분별한 투자와 비상식적인 경영을 일삼아 온 투자자와 경쟁자 인데 벤처산업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다. 만약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돈이 개인인 돈이라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졌다 라면 이러한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벤처기업의 성장이 내포하는 사회적 가치 는 또 무엇인가.

지금까지 벤처기업은 일지러리를 창출하 고, 부의 생산적 증대를 이룩하는 한편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 능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한 축을 형성 할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만들어 왔다. 이들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과 역할을 은 그고 대당했다. 내적으로 지속·성장의 동력을 보유했고 이는 벤처기업은 단기적에 승부를 걸거나 권력에 편승하여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는 다. 오히려 이들은 고도의 기업 윤리를 갖지 했다. 그리고 바로 벤처정신이기 때문이다.

마치 예술성 풍부한 언더그라운드 가수가 데스미디어에 진출한 후 인기를 몰다가 자신의 예술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벤처정신도 그것이 사회·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존재 의미 인 사회적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무늬만 벤처'라는 풍자가 외쳐진 적이 다. 그동안 일부 조급한 벤처기업들이 투자자를 실패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 하는 과정에서 드러내 놓고 비언을 저지르 기도 했다. 하지만 몇 차례 충격이 있었다. 지금은 2~3년 전과는 달리 그런 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지사의 반격을 드러내고 도대체 것이다. 이는 아마도 사회적 책임의식과 결과일 것이다. 시정적으로 는 겸손에서 떠나 배후가 아니라 먼저 단계 전체가 지속된다 것이다.

벤처캐피탈에는 약속의 시간이 필요했 다. 벤처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조 급중요이라는 고요함이 원천치 치유해야 한 다. 빠른 회수를 바라는 조급한 투자자와 경쟁거반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만들어 낸 공급과잉은 모두 조급중에서 기인한 것 이다. 이러한 조급중이 사라지면 벤처투 자의 경제 및 사회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오히려 각 구 투자와 벤처기업가의 간섭을 가원한다. greg@softbank.co.kr

### 벤처기업 '부익부 빈익빈'

벤처캐피탈 검증된 기업 투자집중

벤처투자 시장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출이 있고 코스닥 등락이 유망한 벤처기업에 자금이 물리는 반면 별다른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 시장에서 '발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 심게 로 바이오 기업의 경우 지난해 부터 벤처캐피탈로부터 거 의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부터 벤처캐피탈들이 '헬싱기'라는 기업 이름 1차투자 후 후속투자를 진행하는 '후생투자' 비율을 늘리면서 부익부 빈익부 현상 은 현존 심화될 조짐이다. KT테크노(대표 김한섭) 는 올해 벤처투자 자금 1000억 원 중 300억원을 후생투자부호 로 배정했다. 벤처투자 자금 중 30%를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해 2~3차 후속투자를 하되 라는 의미다. KT테크노의 경우 지난 2002년까지만 테라리도 1차투 자가 전체 투자자금의 90%를 넘겼지만, 지난해부터 후생투 자 비율이 20%대를 넘어섰다. 한국기술투자자(KTIC)대표 임영규도 올해 600억원의 벤

처투자 자금 중 40%인 240억 원은 후생투자쪽에 집행될 계획이다. 이처럼 후생투자 비율이 늘 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 2001년 벤처기업이 거진 후 투자자를 해 고고 이익을 기대하는 '스프레이' 투자(Spray and Pray) 방식에 대한 벤처캐피탈들의 '반성'에서 비롯됐다. 코스닥 등락이 빠르다보니 먼저 투자자 해놓고 기업이 코스닥에 올라 가자 후속투자를 해주는 '후생투자'는 기업 생존과 발전을 투자자가 협력하는 보 다 장기적인 안목의 적극적인 투자자본식'이라며 '투자가 들어간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이 서금도 후생투자는 (벤처투자 자) 성공확률을 매기시키는 모 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기기자

**창업단계 투자보다 성장단계 자금집중**  
**투자효율 극대화 노력**